

2023년 09월 1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2편 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94(통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34장 21~37절(구약p.794)

21.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3.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24.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25.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엎어 흩으시는도다
26.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27.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8.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29.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올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30.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움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1.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33.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34.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36.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 말씀선포 /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본문 23~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

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도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한 자도 생기고,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형벌을 받는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죄인을 판결하는 사람이나 벌하는 사람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로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상의 재판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며 확실합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 비교적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판단에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수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판결에는 인간적인 탐욕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의 죄를 묵인하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류나 실수나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은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로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됩니까?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용서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16~18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된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새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은 드러납니다.

-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체되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 시키실 때, 모든 백성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세상의 불의를 보고만 계시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빨리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며 침묵하시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부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던 모든 자에게 부끄러움과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심판 주로 임하신다는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냐.” 라고 회의를 하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같이 올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매일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행함의 회개 즉,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영적으로 깨어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처럼 죄에 빠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06(통464)장 곤한 내 영혼 편회 설 곳과

◎ 폐 회 / 주기도문